



10. 제목을 잊어버리는 바람에 검색을 못했어요

학습목표 ‘-는 바람에’를 사용하여 예상하지 못한 일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긴 상황을 표현할 수 있다.

학습내용 -는 바람에



생각해 봅시다



- 서점에 자주 가는 편이에요?
- 어느 분야의 책에 관심이 많아요?



본문

- 민** 저기, 책을 좀 찾고 있는데요. 제목을 잊어버리는 바람에 검색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거든요.
- 점원** 제목 말고 저자나 출판사로도 찾을 수 있는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 민** 네. K 출판사에서 발간한 책인데, 한국 문화와 역사를 쉽게 풀어쓴 책이에요. 중학생이 읽을 만한 책인데, 표지에 한국 지도가 그려져 있다고 했어요.
- 점원** 잠시만 기다리세요. (검색하다가) 혹시 ‘처음 만나는 한국 역사’라는 책 아닌가요?
- 민** 아! 네. 이 책 맞네요.
- 점원** 죄송하지만 그 책은 절판이 되어서 저희 매장에는 재고가 없네요.
- 민** 아, 어떡하죠? 다른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을까요?
- 점원** 아마 다른 곳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지만 때때로 출판사에서 재고를 갖고 있기도 하니까 꼭 필요하시다면 출판사에 한번 연락해 보세요.
- 민** 그래야겠어요. 감사합니다.

도입 질문

- 1) 책을 자주 읽는 편이에요?
- 2) 무슨 책을 좋아해요?
- 3) 책은 주로 어디에서 사요?
- 4) 책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어요?
- 5) 요즘 사람들은 어느 분야의 책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본문 학습 순서

- 1) 도입 질문을 한다.
- 2) 본문을 듣기 전, 도입 그림을 보고 본문 내용을 유추해 본다.
- 3) 자막을 보지 않고 듣는다.
- 4) **이해 질문 1**(포괄적인 내용 파악)을 한다.
 - 민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답: 서점)
 - 민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답: 책을 찾고 있다.)
 - 민은 책을 살 수 있었습니까? (답: 아니요, 살 수 없었습니다)
- 5) 질문 4)의 답을 염두에 두고 다시 듣는다.
- 6) 4)의 질문에 대한 답을 확인한다. 그리고 **이해 질문 2**(세부적인 내용 파악)을 한다.
 - 민은 어떤 책을 찾고 있습니까? (답: 한국 문화와 역사를 쉽게 풀어 쓴/설명했다. 중학생이 읽을 만하다. 표지에 한국 지도가 있다.)
 - 민은 책을 왜 살 수 없었습니까? (답: 절판이 되었다.)
- 7) 새 어휘를 설명한다.
- 8) 한 문장씩 듣고 따라하게 한다.
- 9) 학습자가 본문을 읽는다. (혼자 또는 짝지어)

* 상황에 맞게 감정을 실어 읽는다.



내용 이해 질문

(1) 민이는 출판사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O, X)

답 : (O) 민이는 책제목을 잊어버렸지만 'K 출판사'는 기억하고 있었다.

(2) '처음 만나는 한국 역사' 책이 다 팔려서 서점에 없다. (O, X)

답 : (X) 그 책은 다 팔린 것이 아니라 출판사에서 더 이상 만들지 않고 있다.



어휘

제대로	顺利	N1 말고 N2	除了N1以外, 还有N2
저자	作者	출판사	出版社
발간	发行, 发刊, 刊行	풀어 쓰다	解释, 解说
그려지다	画着	혹시	或许
절판(이 되다)	绝版	재고	库存
마찬가지(이다)	差不多	때때로	有时

제대로 : 규칙, 규정 등에 정해진 대로, 알맞은 정도로

- 숙제를 이렇게 대충 하지 말고 제대로 해야지.
- 어제 밤에 천둥번개가 치는 바람에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 텔레비전 소리가 너무 커서 뭐라고 하는지 제대로 못 들었어요.

N1 말고 N2: N1이 아니고 N2

- 민: 오늘 수영장 갈까?
지호: 오늘은 지나랑 약속이 있는데 오늘 말고 내일 만나는 게 어때?
- 엄마: 이번 휴가는 바다로 가는 게 어때요?
아빠: 작년에 갔으니까 바다 말고 계곡으로 가는 건 어떨까요?
- 오늘은 지호 말고 지나가 채소 좀 사올래?

확장) N1 말고도 N2: N1과 N2 모두, N1뿐만 아니라 N2

- 지나가는 노래 말고도 춤도 잘 춰요.
- 언어 교사가 되려면 어학 말고도 교육학, 상담학 등 배워야 할 게 많다.

풀어 쓰다 :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 씀.

- 이 책은 어른에게도 어려운 한자를 초등학생들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만화로 풀어 썼습니다.
- 지구과학을 이렇게 쉽게 풀어 쓴 사이트가 있다니 놀라운걸.
-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세계사를 풀어 쓴 책이 인기가 있대요.

혹시 : 그럴 일은 없지만 만일, 아마도, 어쩌면

- 지나: 오빠, 혹시 두통약 어디 있는지 알아?
- 지호: 안방 서랍장 안에 있을 거야.
- 혹시 한국어 사전 갖고 있어요?
- 혹시 실패하더라도 너무 속상해 하지 마세요.
- 혹시 저를 찾는 전화가 오면 메모 남겨 주세요.

마찬가지 : 모양이나 상황이 같음.

- 숙제를 반만 했으면 안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 할아버지께서는 10년 전이나 마찬가지로 무척 건강하시다.
-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최저가로 판매합니다.

확장) 와/과, 하고, (이) 나 마찬가지로’ 또는 ‘와/과, (이)나 마찬가지로 V’
 꼴 로 주로 쓰인다.

때때로 : 가끔, 어쩌다, 이따금

- 때때로 거짓말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 아버지께서는 때때로 아버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 주었다.
- 줄전갱이라는 생선은 바다 근처에 살지만 때때로 강에 들어가서 생활하기도 한다.

참고 : 풀어쓰다

‘풀어 쓰다’는 ‘모르거나 복잡한 문제 따위를 알아내거나 해결하다’를 의미하는 ‘풀다(본동사)’에 ‘쓰다(본동사)’가 이어진 형태이므로 띄어 표기해야 한다.

- 풀어쓰다: 한글의 현행 자형을 풀어서 초성, 중성, 종성의 차례대로 늘어 놓아 쓰다.



문법학습

-는 바람에

예상하지 못한 일 때문에 좋지 않은/부정적인 결과가 생겼을 때 사용한다.

‘늦잠을 자는 바람에 비행기를 놓쳤다’: 늦잠을 잤다는 예상하지 못한 일 때문에 비행기를 놓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고, 비행기를 놓쳤다는 것은 좋지 않은 결과이다

- ① 창문을 열어 놓고 자는 바람에 감기에 걸렸어요.
- ②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해요.
- ③ 급하게 출발하는 바람에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네요.
- ④ 갑자기 여드름이 나는 바람에 치료하느라고 무척 고생했어.
- ⑤ 밥을 제대로 안 먹는 바람에 건강이 나빠졌다.
- ⑥ 운전을 하다가 깜빡 조는 바람에 사고가 났대요.

‘-는 바람에’의 선행절에는 이유, 후행절에는 그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 또는 말하는 이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나온다.

수업에서 동사 제시 순서

자다>자는 바람에

마시다>마시는 바람에

출발하다>출발하는 바람에

먹다>먹는 바람에

*졸다>조는 바람에

*(바람이) 불다> 부는 바람에

문장 만들기

‘-는 바람에’를 사용하여 후행문에 알맞은 선행문 만들기

- 는 바람에 깜짝 놀랐어요.
- 는 바람에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 는 바람에 동생하고 다투었어요.
- 는 바람에 돈을 다 써 버렸어요.
- 는 바람에 부모님께 꾸중을 들었어요.
- 는 바람에 사람이 많이 다쳤대요.
- 는 바람에 사용법을 전혀 모르겠어요.

대화 연습하기

1. 민: 도서관에서 책 빌렸어?
지호: 늦게 가는 바람에 못 빌렸어.
2. 유리: 지나야, 어디 가?
지나: 숙제를 집에 놓고 오는 바람에 집에 갔다 와야 해.
3. 어머니: 아유, 채소 값이 너무 비싸네요.
아주머니: 가뭄이 드는 바람에 그런 것 같네요.
4. 지호: 어머니, 저 뉴스 좀 보세요. 다리가 무너지는 바람에 사람이 많이 죽고 다쳤대요.
어머니: 아이고, 저런. 큰일이구나..



1. 선행이 후행의 원인이나 이유가 됨을 나타낸다.

- 차가 밀리는 바람에 비행기를 놓쳤다.
- 여행을 다녀오는 바람에 이메일 답이 늦었어.
- 갑자기 비가 오는 바람에 비를 흠뻑 맞았어요.
- 전쟁이 나는 바람에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 말실수로 친구의 비밀을 말하는 바람에 친구와의 관계가 서먹해졌다.

2. '-는 바람에'는 보통 선행이 후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사용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 너무 긴장하는 바람에 시험을 망쳤어요.
- 지하철이 늦게 오는 바람에 지각할 뻔했어요.
- 친구가 나한테 커피를 쏟는 바람에 옷에 얼룩이 생겼어요.
- 친구가 나한테 커피를 사 주는 바람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X)

3. 지난 일이라도 과거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버스를 잘못 탄 바람에 지각했다. (X)
- 버스를 잘못 타는 바람에 지각했다. (O)

'-는 바람에'에서 의존 명사 '바람'은 명사 '바람'의 중심적 의미가 확장되어 쓰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유를 표현하는 문형

-아/어/여서, -니까, -기 때문에, -아/어/여 가지고, -거든, -느라고, -길래, -기에, -는 통에, -어서 그런지, -(으)므로, -다고 등

'는 바람에', '-는 통에': 둘 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원인을 표현할 때 쓰인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바꾸어 쓸 수는 없다. '-는 바람에'는 때때로 긍정적인 결과의 이유를 나타내어 말하는 이가 원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되어 버렸음을 표현하기도 한다.

예) 앞선 주자가 넘어지는 바람에 제가 결승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는 바람에'는 지난 사실을 표현할 때도 '-는 바람에'로 쓰이지만, '-는 통에'는 '-(으)로 통에'를 쓴다.

'-(으)로 바람에'를 사용한 문장이 간혹 보이기도 한다.

예) 어제 술을 많이 마신 바람에 머리가 아프다.

한 골 더 먹은 바람에 우승을 놓쳐 버렸다.

그러나 이러한 예는 드물고 학습자들이 오류를 만들지 않도록 '-는 바람에' 형태로 가르친다.



1. 빈 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십시오.

제대로 풀어쓴 혹시 때때로 마찬가지로

- 1) 혹시 우리 전에 만난 적이 있나요?
- 2) 양념이 없어서 제대로 맛을 내지 못했어요.
- 3) 한자어로 된 고전을 현대어로 풀어쓴 책이 출판되었다.
- 4)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때때로 실수할 때가 있어요.
- 5) 나라마다 인사할 때 지켜야 하는 예절이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 이다.

2. <보기>와 같이 알맞은 문장을 고르십시오.

<보기> 비를 맞다 / 감기에 걸리다 → 비를 맞는 바람에 감기에 걸렸어요.

- 1) 사고가 나다 / 길이 막히다
 - ① 사고가 난 바람에 길이 막혔어요.
 - ② 사고가 나는 바람에 길이 막혔어요.
 - ③ 사고가 나는 바람에 길이 막힐 거예요.

해설 : ①에서 '난 바람에'는 '나는 바람에'로 고쳐야 하며, ③에서 '막힐 거예요'가 잘못되었다. '-는 바람에'의 뒤에는 이미 발생한 결과를 나타내야 한다.

2) 시험이 있다 / 늦게 일어나다 / 시험을 못 보다

- ① 시험이 있지만 늦게 일어난 바람에 시험을 못 봤어요.
- ② 시험이 있어서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시험을 못 봤어요.
- ③ 시험이 있는데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시험을 못 봤어요.

해설 : ①에서 '일어난 바람에'가 잘못되었다. ②는 시험이 있으면 보통 일찍 일어나야 하므로 '시험이 있어서 늦게 일어났다'에서 '-어서'의 사용이 잘못되었다.

3) 바람이 심하게 불다 / 나무가 쓰러지다 / 건물이 부서지다

- ① 바람이 심하게 부는 바람에 나무가 쓰러져서 건물이 부서졌어요.
- ② 바람이 심하게 불었지만 나무가 쓰러지는 바람에 건물이 부서졌어요.
- ③ 바람이 심하게 부는데 나무가 쓰러지는 바람에 건물이 부서질 거예요.

해설 : 바람이 심하게 부는 예상하지 못한 일 때문에 나무가 쓰러지는 결과가 발생했고 그것을 이유로 건물이 부서졌다. ②는 '바람이 심하게 불었지만'에서 '-지만'이 잘못 사용되었고, ③은 '나무가 쓰러지는 바람에 건물이 부서질 거예요'에서 '-는 바람에'의 후행에 '부서질 거예요'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진술한 것이 잘못되었다.

1. 어휘 연습

부사 '제대로, 혹시, 때때로'는 문장 만들기를 하여 부사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확인한다.

- 3) '풀어 쓰다'의 활용형에 주의한다.
- 4)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도 인사할 때 지켜야 할 예절이 있다.

- 양념: spicy
- 고전: classic
- 아무리
(ever so, no matter how)

2. 문법 연습

문법 정보를 다시 확인한다.

[-는 바람에]

- 이유
 - 부정적인 결과
 - '-(으)ㄴ 바람에'로 쓰이지 않음.
- 제시된 문장을 순서대로 연결해야 한다.

예) 사고가 나다 / 길이 막히다
→ 사고가 나는 바람에 길이 막혔다. (O)

→ 길이 막혀 가지고 사고가 났다. (X)

학습자가 답항을 보기 전에 스스로 문장을 연결해 보도록 지도한다.

학습자가 문장을 직접 연결할 때는 학습자 급에 알맞은 문형과 어휘를 사용하도록 한다.

예) 고급 학습자

- ① 사고가 나서 길이 막혔다.
- ② 사고가 나는 바람에 길이 막혔다.

①, ② 모두 의미상 맞는 문장이지만 고급 학습자는 ①보다 ②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 길이 막히다: a road is blocked
- 차가 밀리다: to have a traffic jam
- 쓰러지다: to fall down
- 부서지다: to be destroyed

3. <보기>와 같이 이어지는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지나 엄마: 어제 집에 도둑이 들어왔다면데요?

아주머니: _____

- ① 문을 잠그는 바람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 ② 도둑이 들어오는 바람에 문을 잠그게 됐어요.
- ③ 문을 잠그는 걸 잊어버리는 바람에 그렇게 됐어요.

해설 : 지나 엄마가 도둑이 들어왔다는 소문을 듣고 그 내용을 아주머니에게 확인하고 있다. 이어지는 말은 도둑이 들어왔다는 상황과 관계있는 것이어야 한다.

1) 민: 어떻게 하다가 다리를 다쳤어?

지호: _____

- ① 눈이 많이 와서 길에서 미끄러졌지만 괜찮았어.
- ② 계단에서 핸드폰을 보면서 내려오다가 넘어졌어.
- ③ 스키를 타다가 바람이 심하게 부는 바람에 못 탔어.

해설 : 민은 지호가 다리를 다친 이유를 물어보고 있다.

2) 엄마: 같이 보기로 한 콘서트 표는 예매했어요?

아빠: _____

- ① 사람이 너무 몰리는 바람에 콘서트를 보지 못했어요.
- ② 그 시간에 다른 약속이 있는 바람에 함께 볼 수 없어요.
- ③ 컴퓨터가 고장 나는 바람에 온라인 예매를 할 수 없었어요..

해설 : 남자와 여자는 콘서트를 함께 보기로 약속했다. 두 사람은 콘서트를 보기 전이고 여자는 남자에게 콘서트 표를 샀는지 묻고 있다.

3) 민 : 지난주가 유리 생일이었는데 파티에 다녀왔어?

지나: _____

- ① 감기에 걸렸는데 생일 파티에 못 갔어요.
- ② 날짜를 깜빡하는 바람에 못 갈 뻔했어요.
- ③ 친구가 파티에 같이 가자고 하는 바람에 못 갔어요.

해설 : 민은 지나에게 지난주 유리 생일 파티에 다녀왔는지 묻고 있다. ①에서 '감기에 걸렸는데'는 '감기에 걸려서'로 바뀌어야 맞는 문장이 된다.

3. 대화 연습

자연스러운 담화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연습이다.

정답 이외의 질문을 학습자가 스스로 만들어 보도록 한다.

예)

A. 어제 집에 도둑이 들어왔다면 서요?

B. 네. 도둑이 들었는데 전화가 고장 나는 바람에 경찰에 신고도 못했어요.

B'. 도둑이러니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잘못 들으셨나 봐요.

- 문을 잠그다: to lock a door
- 다가: while~ing, almost do something
- 미끄러지다: to slip
- (사람이) 몰리다: to flock
- 예매(하다): to book a ticket
- -(으)ㄴ 뻔했다: almost do something

과제

지금까지 살면서 다치거나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까? 예상하지 못한 일 때문에 큰일이 난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그때의 경험을 써 봅시다. 단, 아래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직접 경험한 일을 써야 한다.
- ‘-는 바람에’를 사용해야 한다.
- 문어체(‘-다, ㄴ/는다’)로 써야 한다.
- 700~800자 정도로 써야 한다.

예시답변

나는 물건을 잘 안 잃어버리는 편인데, 갑자기 배탈이 나는 바람에 지갑을 잃어버린 일이 있다.

어느 날 학원을 마치고 복도 의자에 앉아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져서 가방을 의자 위에 두고 화장실로 뛰어갔다. 화장실에서 나오고 보니까 내 가방이 열려 있었고 가방 안에 있던 지갑도 사라졌다. 돈을 잃어버린 것도 속상했는데 그것보다 더 속상한 것은 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을 잃어버린 것이었다.

그 다음부터는 나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가방을 챙기는 것을 잊지 않는다.

도입 질문

- 과거에 좋지 않은 일, 원하지 않은 결과가 생겼던 일을 생각해 본다.
- 무슨 일이 있었는가?
- 그때 기분이 어땠는가?
- 그 사건으로 인해 내가 달라진 것이 있는가?

작문 지도

- 지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직접 경험한 일, 문형, 문체, 길이)
- 글의 구성이 짜임새 있어야 한다. (처음-중간-끝)
- 단락이 나누어져 있어야 한다.
- 학습 수준에 맞는 문형과 어휘를 사용해야 한다.
-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부호를 정확히 지켜야 한다.



함께 풀어봅시다

1. 그림을 보고 대화를 완성하십시오.



1) 민수: 오늘 왜 늦게 왔어?

준영: 아침에 시계를 끄고 _____는
바람에 지각했어.

2) 민: 어제 농구하다가 다쳤다면서?

지호: 응, _____는
바람에 넘어졌어.

2. 다음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민수가 잘못된 일	이유
수업 시간에 늦었다.	차가 많이 밀렸다.
친구에게 전화를 못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다 되었다.
숙제를 가져오지 못했다.	
콘서트 표를 예매하지 못했다.	갑자기 인터넷이 잘 안 되었다.
지하철 안에서 다른 사람의 발을 밟았다	

1) 죄송해요. 차가 많이 밀리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2) 미안해. _____는 바람에 전화를 못했어.

3) 죄송해요. _____는 바람에 숙제를 가져오지 못했어요.

4) 미안해. _____는 바람에
_____5) 죄송해요. _____는 바람에
_____6) _____



함께 풀어봅시다 (답안지)

1. 그림을 보고 대화를 완성하십시오.



1) 민수: 오늘 왜 늦게 왔어?

준영: 아침에 시계를 끄고 _____ 자 _____ 는
바람에 지각했어.



2) 민: 어제 농구하다가 다쳤다면서?

지호: 응, 친구하고 부딪치/발을 헛디디 _____ 는
바람에 넘어졌어.

2. 다음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민수가 잘못된 일	이유
수업 시간에 늦었다.	차가 많이 밀렸다.
친구에게 전화를 못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다 되다.
숙제를 가져오지 못했다.	가방에 넣는 것을 잊어버리다.
콘서트 표를 예매하지 못했다.	갑자기 인터넷이 잘 안 되었다.
지하철 안에서 다른 사람의 발을 밟았다	지하철이 갑자기 멈췄다.

- 1) 죄송해요. 차가 많이 밀리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 2) 미안해.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다 되 는 바람에 전화를 못했어.
- 3) 죄송해요. 가방에 넣는 것을 잊어버리 는 바람에 숙제를 가져오지 못했어요.
- 4) 미안해. 갑자기 인터넷이 잘 안 되 는 바람에 콘서트 표를 예매하지 못했어.
- 5) 죄송해요. 지하철이 갑자기 멈추 는 바람에 발을 밟았어요.
- 6) _____
